

## 경문왕 응림의 三善人\*

梁楠\*\* · 장활식\*\*\*

1. 머리말
2. 삼선인 설화의 내용
3. 삼선인의 실체 추정
4. 삼선인의 의미 추정
5. 맺음말

### <국문초록>

신라 제 48대 경문왕 응림은 현안왕 4년(860)에 삼선인에 대해 현명하게 대답하여 현안왕의 사위로 간택되었고, 이듬해에 즉위했다고 한다. 삼선인은 지방호족·중앙귀족에 대한 비판, 화랑정신의 강조, 국왕에게 요구되는 덕목의 제시였다는 기존의 해석이 있다.

본 연구는 三善人의 실체를 신라하대의 슬픈 역사 속에서 찾았다. 첫째로 고귀한 가문의 자제이면서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던 사람은 현안왕의 외조부인 충공으로 추정되었다. 둘째로 부유한 집안출신이면서도 삼베옷을 입고 만족했던 사람은 사치금지령을 내렸던 흥덕왕으로 판단되었다. 셋째로 권세·영화가 있으면서도 사람들을 억누르지 않았던 사람은 위로는 하늘에 죄를 지을까봐 두려워했고, 아래로는 백성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을까봐 근심하여, 밤낮으로 전전긍긍하며 깊은 물과 얇은 얼음을 건너는 것과 같이 했다는 문성왕으로 판단되었다.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 1 저자: 동아대학교 중국·일본학부 조교수 (daln@dau.ac.kr)

\*\*\* 교신저자: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 (hwschang@pusan.ac.kr)

본 연구는 삼선인의 의미를 신라하대의 왕위계승과정에서 찾았다. 첫째로 충공은 인겸계의 분열을 촉발치 않았고, 예영계와 단합하여 원성왕계에 도전한 김헌창의 반란을 제압했다. 둘째로 흥덕왕은 인겸계에 의해 독점되었던 왕위를 예영계에 할애 또는 이양했다. 셋째로 문성왕은 헌정계와 균정계의 분열을 봉합하고 화합토록 했다. 따라서 응림이 월지의 임해전에서 삼선인의 은유를 통해 헌강왕에게 다짐했던 사항은 첫째로 원성왕계의 단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둘째로 왕위계승대상을 자신의 직계자손으로 고집하지 않을 것이며, 셋째로 계파 간의 분열을 경계하고, 화해와 상호 존중을 도모할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 주요어: 은휘, 왕위계승, 임해전, 월지궁, 충공

## 1. 머리말

『삼국사기』는 신라 역사를 상대·중대·하대로 구분하고, 하대를 [37]宣德王代에서 [56]경순왕대까지라 했다.<sup>1)</sup> 신라하대의 왕위계승은 복잡하게 전개되어 왕의 평균재위기간이 7.8년에 불과했다. 하대의 후반에서는 金씨 [48]경문왕의 자손에 이어서 朴씨 [53]신덕왕, [54]경명왕, [55]경애왕이 등장했고, 金씨 [56]경순왕이 고려태조에게 투항하여 신라 역사를 끝맺었다.

경문왕은 중대·하대에 걸쳐 유일하게 왕의 사위로서 즉위했지만, 아들인 [49]헌강왕과 [50]정강왕에 이어서 딸인 [51]진성여왕의 즉위까지도 가능케 했던 기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진성여왕을 정점으로 하는 경문왕가의 형성과 왕위의 계승”은 통일신라가 분열하여 후삼국시대(901~936)로 진입하는 전환기의 배경이 되었다.<sup>2)</sup>

1) “自武烈至惠恭八王 謂之中代 自宣德至敬順二十王 謂之下代”(『三國史記』 敬順王 9年 12月). 대괄호 속의 숫자는 신라 왕대를 나타낸다.

2) 황선영, 「新羅下代 景文王家的 王位繼承과 政治的 推移」, 『신라문화』 27,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6, 24쪽.

본 연구는 [48]경문왕 응림이 [47]현안왕에게 말했다는 三善人의 실체와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삼국사기』는 현안왕이 삼선인에 대한 대답을 듣고서 응림의 능력을 알고 사위로 간택했다고 했다. 한편 『삼국유사』는 현안왕이 三美行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응림의 현명함을 알았지만, 자신이 흘리는 눈물은 몰랐었다고 했다. 본 연구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을 종합하여 三善人에 내포된 의미를 살펴보는데, 본론의 전개에 앞서 다음의 사항들을 밝혀둔다.

첫째, 본 연구는 三善人 이야기를 경문왕 즉위설화의 일부로<sup>3)</sup> 본다. 대개 즉위설화는 [32]효소왕,<sup>4)</sup> [38]원성왕처럼 왕위계승의 정통성과 명분이 미약한 경우에 형성되는데, 삼선인 설화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둘째, 본 연구는 삼선인 설화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의미를 찾고자 한다. 『삼국유사』의 설화에 “알레고리, 의도적 오류, 일연의 코드, 은휘 등이 존재”함은 잘 알려져 있다.<sup>5)</sup> 그런데 『삼국사기』에도 내포된 의미가 쉽게 드러나지 않도록 서술된 隱諱가 적지 않게 존재한다. 예를 들면, 『삼국사기』의 「신라본기」에는 원자·왕자의 탄생기록이 놀랍게도 단 2개뿐인데, 그 기록의 말미에 “심한 우레와 번개가 쳤다”라는 서술이 공통적으로 붙어있다.<sup>6)</sup>

3) 경문왕 즉위설화는 三善人과 三利之勝緣 이야기로 구성되어있다(“三利之勝緣有待”, 崔致遠, 『孤雲集』 卷 3, 大高福寺碑銘: “師前所謂三益者何也”, 『三國史記』 景文王 3年 11月: “娶其兄則必有三美 (중략) 吾所陳三美者今皆著矣 娶長故今登位一也 昔之欽艷第主今易可取二也 娶兄故王與夫人喜甚三也”, 『三國遺事』 紀異, 景文大王).

4) 만파식적 설화는 “효소왕의嫡統성과 권위를” 드높이기 위해 형성된 설화로 평가된다(신종원, 「신라오대산사적과 성덕왕의 즉위배경」, 『최영희선생화갑기념 한국사학논총』, 1987, 105쪽). 효소왕 이흥은 [30]문무왕의 태자 정명의 婚外子로 김흠운의 딸에게서 태어났다(서정목, 「효소왕의 출생 시기 관련 기록 검토」, 『진단학보』 122, 진단학회, 2014, 36쪽). [31]신문왕 정명의 왕자로는 첫째 정신태자(666/670~697), 둘째 효명태자인 [32]효소왕 이흥(677~702), 셋째 [33]성덕왕 용기(681~737), 넷째 신목왕후(=김흠운의 딸)에게서 태어난 원자(687~692)가 있었다(장활식, 「효소왕의 출생연대와 즉위과정」, 『신라문화』 51, 신라문화연구소, 2018a, 122쪽).

5) 장활식, 「삼국유사 신주편 헤통항룡조의 분석」, 『신라문화』 52, 신라문화연구소, 2018b, 73쪽; 장활식, 「삼국유사에 나타나는 밀본의 실체」, 『신라문화』 47, 신라문화연구소, 2016, 103~138쪽.

6) “元子生 是日陰沈昧暗 大雷電”(『三國史記』 神文王 7年 2月): “王子生 大雷電 震佛寺十六所”(『三國史記』 景德王 17年 7月 23日).

『삼국사기』는 [31]신문왕의 원자가 태어난 날에 “大雷電”이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삼국유사』에 따르면 신문왕의 원자(687~692)는 신문왕의 아우에 의해 주멸되었고, 그 직후에 [32]효소왕 이흥(677~702)이 오대산에서 돌아와서 즉위했다.<sup>7)</sup> 신증원은 “大雷電”이 원자의 “출생으로 인한 어떤 비극을 예견하게” 한다고 했다.<sup>8)</sup>

또한 『삼국사기』는 [35]경덕왕의 왕자인 건운의 탄생에도 “大雷電”이 있었다고 했다. 알다시피 신라중대의 마지막 왕인 [36]혜공왕 건운은 반란의 와중에 살해되었고, 신라하대는 [37]선덕왕의 왕위를 이어받은 [38]원성왕에 의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sup>9)</sup> 따라서 『삼국사기』에서 왕자의 탄생에 동반된 “심한 우레와 번개”는 왕위계승과 관련된 왕자의 비극적인 죽음을 암시하는 듯하다. 본 연구는 이런 은유가 경문왕의 삼선인 설화에도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는 김부식(1075~1151)이 편찬한 『삼국사기』(1145)를 전제로 일연(1206~1289)이 『삼국유사』(1284±)를 편술했음에 주목한다.<sup>10)</sup> 『삼국사기』와 겹치면서 다소 내용이 다른 『삼국유사』의 서술은 다분히 의도적이라 하겠다. 일연이 三美行者 설화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삼국사기』의 三善人 설화를 참조하지 않았을 리는 없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경문왕의 왕위계승에 관한 『삼국사기』의 三善人 설화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를 『삼국유사』의 三美行者 설화의 서술에 비추어서 밝혀보고자 한다.

7) “淨神王之弟與王爭位 國人廢之”(『三國遺事』 塔像, 臺山五萬真身); “淨神太子弟 副君在新羅 爭位誅滅”(『三國遺事』 塔像, 溟州五臺山寶叱徒太子傳記); “乃摘左邊第二窠沉溪即成龍上天”(『三國遺事』 紀異, 万波息笛); 장활식, 앞의 논문, 2018a, 125쪽.

8) 신증원, 앞의 논문, 103쪽.

9) 『삼국사기』는 혜공왕을 살해한 주체를 모호하게 서술했다(“王與后妃爲亂兵所害”, 『三國史記』 惠恭王 12年 4月). 한편 『삼국유사』는 선덕왕과 김양상이라 했는데(“修爲宣德與金良相所弑”, 『三國遺事』 紀異, 景德王·忠談師·表訓大德), 선덕왕의 이름이 김양상이다(“宣德王立 姓金氏 諱良相”, 『三國史記』 宣德王 元年). 의도적인 오류였다면, 일연은 혜공왕 살해 주체에서 [38]원성왕 김경신을 忌諱했다고 추정된다.

10) 김복순, 「삼국유사 속의 삼국사기」, 『동국사학』 62, 동국대학교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7, 380쪽.

## 2. 삼선인 설화의 내용

삼선인 설화는 『삼국사기』의 헌안왕 4년(860) 가을 9월에 기록되어있다. 헌안왕은 그로부터 약 4개월 뒤인 재위 5년(861) 1월 29일에 승하했다.<sup>11)</sup> [가-1]의 三善人 설화와 [가-2]의 三美行者 설화는 원문을 빠짐없이 최대한 충실하게 번역한 것이다.

[가-1] (헌안)왕이 군신들을 임해전에 모이게 했는데, 왕족 응림이 15살의 나이로 참석했다. 왕은 그의 뜻을 알고자, 문득 “자네는 한동안 游學하면서 善人者를 만나본 적이 없었더냐”라고 물었다. 응림이 “臣이 일찍이 세 사람을 보았는데, 자못 善行이 있다고 여겼습니다”라고 답했다. 왕이 “어떠했던 것이었냐”라고 물었다.

남이 말하기를 “한 사람은 고귀한 집안의 자제이면서도 다른 사람과 함께함에 있어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아래에 자리했고, 한 사람은 재물이 많은 집안에서 사치스런 옷을 입을 수가 있었음에도 항상 삼베옷을 입고서도 기뻐했고, 한 사람은 권세와 영화가 있었음에도 그 세도로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니다. 臣이 본 바는 이와 같았습니다”라고 했다.

왕이 듣고 말없이 있다가 왕후에게 귓속말로 “내가 많은 사람을 보았지만 응림만한 이는 없었소”라고 하고, 그를 사위로 삼을 생각으로 돌아보고 이르기를 “바라건대 그대는 몸을 아끼라. 나에게 딸자식이 있으니 그대의 배필로 삼게 하리라”라고 했다. 다시 함께 술을 마시며 조용히 말하기를 “나에게 두 딸이 있는데, 큰 아이는 올해 스무 살이고 작은 아이는 열아홉 살이다. 그대 마음에 드는 대로 장가를 들라”라고 했다.<sup>12)</sup>

11) “是月二十九日 薨 諡曰憲安 葬于孔雀趾”(『三國史記』 憲安王 5年 春正月). 『삼국유사』의 「왕력」 기록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戊寅立 理三年”, 『三國遺事』 王曆, 第四十七 憲安王).

12) “王會群臣於臨海殿 王族膺廉年十五歲 預坐焉 王欲觀其志 忽問曰: ‘汝游學有日矣 得無見善人者乎’ 答曰: ‘臣嘗見三人 竊以爲有善行也’ 王曰: ‘何如’ 曰: ‘一高門子弟 其與人也 不自先而處於下 一家富於財 可以侈衣服 而常以麻紵自喜 一有勢榮 而未嘗以其勢加人 臣所見如此’ 王聞之默然 與王后耳語曰: ‘朕聞人多矣 無如膺廉者’ 意以女妻之 願謂膺廉曰: ‘願郎自愛 朕有息女 使之薦枕’ 更置酒同飲 從容言曰: ‘吾有二女 兄今年二十歲 第十九歲 惟郎所娶’ 膺廉辭不獲 起拜謝”(『三國史記』 憲安王 4年 秋 9月).

[가-2] (경문)왕의 이름은 응렴이고, 나이 18살에 국선이 되었다. 약관 (=20살)이 되자 현안대왕이 낭을 불러서 (임해)전에서 향연을 베풀면서 “낭은 국선이 되어 사방을 遊學하다가, 어떤 異事를 보았는가”라고 물으니, 낭이 “臣은 美行者 3명을 보았습니다”라고 답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하네”라고 했다.

낭이 말하기를 “사람 위에 있을 사람이면서도 겸손하게 사람의 아래에 자리했던 사람이 첫째이며, 큰 부자임에도 겸손하게 옷을 입었던 사람이 둘째이며, 본래 귀하고 세력을 가졌음에도 그 위세를 부리지 않았던 사람이 셋째였습니다”라 했다. 왕이 그 말을 듣고서 그의 어짙을 알고 눈물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이르기를 “짐에게 두 딸이 있는데 (자네의) 시중을 들게 하고 싶네”라고 했다.<sup>13)</sup>

[가-2]는 『삼국유사』 기이편의 「제 48 경문대왕」조의 첫 부분에 적혀있는 三美行者 설화이다. [가-1]과 [가-2]에 따르면, 현안왕은 재위 4년(860) 9월에 월지의 임해전에서 군신들에게 향연을 베풀면서 왕족인 응렴에게 화랑의 수련과정인 유학의 경험에 대해 질문했다.

첫째, 현안왕과 응렴의 관계를 살펴본다. 응렴의 조부는 [43]희강왕이었고, 부친은 계명이었다. 현안왕, 계명, 응렴의 부계와 모계를 『삼국사기』 등에서 찾아보면 <표 1>와 같이 드러난다.

#### <표 1> 현안왕, 계명, 응렴의 인척관계

현안왕 부계: 원성왕 → 예영 → 균정  
 모계: 원성왕 → 인검 → 충공 → 조명부인  
 계명의 부계: 원성왕 → 예영 → 현정 → [43]희강왕  
 모계: 원성왕 → 인검 → 충공 → 문목부인  
 응렴의 부계: 원성왕 → 예영 → 현정 → [43]희강왕 → 계명  
 모계: 원성왕 → 예영 → 균정 → [45]신무왕 → 광화부인

13) “王諱膺廉 年十八爲國仙 至於弱冠 憲安大王召郎宴於殿中 問曰: ‘郎爲國仙 優遊四方 見何異事’ 郎曰: ‘臣見有美行者三’ 王曰: ‘請聞其說’ 郎曰: ‘有人爲人上者而撝謙坐於人下其一也 有人豪富而衣儉易其二也 有人本貴勢而不用其威者其三也’ 王聞其言而知其賢 不覺墮淚而謂曰: ‘朕有二女 請以奉巾櫛’”(『三國遺事』 紀異, 四十八景文大王).

현안왕의 조부인 예영이 계명의 증조부였다. 현안왕은 계명의 오촌당숙 즉 종숙부였다. [47]현안왕과 계명의 부친인 [43]희강왕이 사촌지간이었으니 결코 멀지 않은 친척지간이었다. 또한 현안왕과 계명의 외조부가 충공이었으니 현안왕의 모친과 계명의 모친이 자매지간이었다. 모계로 보면, 현안왕과 계명은 외종사촌형제였다. 현안왕의 부모, 계명의 부모, 응림의 부모는 모두가 원성왕계 내에서 가까운 혈족끼리 근친혼을 했다.<sup>14)</sup>

원성왕의 아들로는 첫째 인겸, 둘째 의영, 셋째 예영이 있었다.<sup>15)</sup> 원성왕은 첫째 인겸이 사망하자, 둘째 의영을 태자로 삼았지만, 셋째 예영까지도 생전에 잃었던 듯하다.<sup>16)</sup> [38]원성왕의 손자로는 첫째 인겸의 아들인 ①준용([39]소성왕), ②연승([41]헌덕왕), ③수종([42]흥덕왕), ④충공이 있었고, 둘째 의영의 아들은 파악하기가 어렵고,<sup>17)</sup> 셋째 예영의 아들인 ⑤현정과 ⑥균정이 있었다. 원성왕계는 첫째 인겸계와 셋째 예영계로 나뉘었고, 예영계는 다시 현정계와 균정계로 나뉘었다. 현안왕의 부계는 예영계의 균정계였고, 계명의 부계는 예영계의 현정계였다. 현안왕과 계명의 모계는 인겸계의 ④충공에서 비롯되었다.

응림의 모친은 균정계 [45]신무왕의 딸인 광화부인이었다. 신무왕과 현안왕이 이복형제였으니<sup>18)</sup> 현안왕은 광화부인의 이복숙부였다. 신무왕의 왕위는 태자 [46]문성왕으로 이어졌고, 문성왕은 자신의 태자를 잃은 후에 이복숙부인 [47]현안왕 의정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문성왕과 광화부인이 남매지간이었음은 물론이다.

14) 왕실 내의 근친혼은 신라상대에서도 보편적이었다(하정룡, 「新羅上代 王位繼承 研究-王室內 近親婚을 中心으로」, 『신라문화』 12, 신라문화연구소, 1995, 186쪽).

15) “惠忠太子 憲平太子 禮英匠干 大龍夫人 小龍夫人”(『三國遺事』 紀異, 元聖大王).

16) “王太子卒”(『三國史記』 元聖王 7年 1月); “太子義英卒”(『三國史記』 元聖王 10年 2月); “封惠忠太子之子俊嶺爲太子”(『三國史記』 元聖王 11年 1月).

17) 의영의 자손은 왕위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기록으로 가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다만 원성왕 8년(792)에 의영을 태자로 책봉하면서 승빈을 시중으로 임명했고, 원성왕 10년(794)에 태자 의영이 사망하자 시중 승빈이 사임했다(“封王子義英爲太子(중략) 伊滄崇斌爲侍中”, 『三國史記』 元聖王 8年 8月; “太子義英卒 謚曰憲平 侍中崇斌免”, 『三國史記』 元聖王 10年 2月). 진퇴시점이 일치하므로 의영의 아들로 승빈을 상정해볼 수는 있을 듯하다.

18) “憲安王立 諱誼靖[一云祐靖] 神武王之異母弟也”(『三國史記』 憲安王 元年).

둘째, 임해전에서 어떤 이유로 연회가 열렸고, 응렴이 어떤 자격으로 참석했는지를 살펴본다. 송은일은 왕위계승자로 내정되어 있었던 응렴을 내세워 “형식적이거나 그의 자질을 시험”하고, “자신의 사위로 삼겠다고” 군신들에게 천명했던 자리로 보았고, 김창겸은 군신들에게 “응렴을 왕위계승자로 (인정하는) 묵시적인 결정, 동의를 구한 절차”로 보았고, 심치열은 “당시 정치권에서 최고 실력자인 계명의 아들 응렴을 사위로” 맞이하는 자리로 보았다.<sup>19)</sup>

현안왕 의정과 계명은 문성왕 10년(848)경부터 권력의 핵심으로 함께 떠올랐다. 문성왕 10년(848)에 이찬 위훈이 시중직에서 물러나고, 계명이 임명되었다.<sup>20)</sup> 위훈(金陽: 808~857)은 [45]신무왕 우징의 즉위를 예징 등과 주도했고, [46]문성왕 4년(842)에 자신의 딸을 문성왕비로 들였고, 문성왕대에 병부령을 지냈던 인물이다.<sup>21)</sup> 이어서 문성왕 11년(849) 1월에는 신무왕의 일등공신이었던 상대등 예징이 사망했고, 이찬 의정([47]현안왕)이 새로운 상대등으로 임명되었다.<sup>22)</sup>

현안왕은 즉위년(857)에 이찬 김안을 상대등에 임명했다.<sup>23)</sup> 현안왕대(857~861)에 시중 임명기록이 없으므로 계명은 시중직을 유지했었던 듯하다. 현안왕은 상대등 김안과 시중 계명의 보좌를 받아 정국을 운영했다고 여겨진다. 당대 최고권력자에 속했음이 분명한 계명의 아들인 응렴은 현안왕의 사위로 이미 내정되어 있었고, 연회의 주인공으로서 현안왕과 군신들 앞에 나섰던 것으로 봐야 옳을 듯하다.

19) 송은일, 「新羅下代 景文王系の成立」, 『전남사학』 22, 호남사학회, 2004, 148쪽; 김창겸, 「신라 憲安王의 卽位와 治績」, 『신라문화』 26, 신라문화연구소, 2005, 47쪽; 심치열, 「삼국 유사소제 설화의 서사적 계승 연구」, 『국어국문학』 139, 국어국문학회, 2015, 307쪽.

20) “侍中魏昕退 波珍浪金啓明爲侍中”(『三國史記』 文聖王 10年).

21) “轉侍中兼兵部令”(『三國史記』 卷 44, 列傳 4, 金陽, 開成 4年). 위훈은 문성왕 19년(857) 8월에 사망하여, 무열왕릉 아래에 묻혔다(『三國史記』 卷 44, 列傳 4, 金陽).

22) “上大等禮徵卒 伊浪義正爲上大等”(『三國史記』 文聖王 11年 春正月).

23) “以文聖顧命卽位 大赦 拜伊浪金安爲上大等”(『三國史記』 憲安王 元年). 김안에 대해서는 후대의 신뢰하기 어려운 기록을 제외하면 알려진 바가 없다(권영오, 「신라하대 왕위계승과 상대등」, 『지역과 역사』 10, 부경역사연구소, 2002, 10쪽, 각주 14번). 다만 김안의 상대등 임명기록이 ‘以’가 아닌 ‘拜’로 적혀있어, 王家의 어른이었을 듯하다.

셋째, 현안왕 4년(860)에 응림이 15살의 화랑이었는지, 20살의 국선출신이었는지를 살펴본다. 「송복사비명」(896)에 따르면 응림이 현안왕 4년(860) 이전에 학문과 화랑도를 익혔음은 분명하다.<sup>24)</sup> 기존의 대부분 연구는 현안왕이 남긴 유조의 “응림의 나이가 비록 적지만”이라는 구절을 주된 근거로 15살이었다고 추정했고, 티코노브는 初仕에 나서기 직전으로 판단하여 20살로 추정했다.<sup>25)</sup>

대개 화랑의 수련연한은 15~18살, 국선의 연한은 18~20살, 진골귀족의 初仕時 나이는 20살 전후였다.<sup>26)</sup> 따라서 ‘15살의 화랑’이나 ‘20살의 국선출신’은 가능하지만, 『동국통감』이 제시한 ‘15살의 국선’은<sup>27)</sup> 성립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동사강목』(1778)은 ‘국선을 따라서 유학을 다녀온 15살의 화랑’이라 서술했다.<sup>28)</sup>

본 연구는 당시의 결혼적령기를 살펴본다. 唐의 결혼허용연령은 정관 원년(627)부터 남자 20살, 여자 15살이었고, 개원 22년(734)부터 남자 15살, 여자 13살로 낮춰졌고, 이후에는 변동이 없었다.<sup>29)</sup> 신라중대(654~780)의 국왕 혼인은 대개 15~18살에 이뤄졌는데,<sup>30)</sup> 하대에서 혼인연령이 높아졌을 리는 없을 듯하다. 따라서 신라하대 왕실의 결혼적령기는 대략 남자 15~18살, 여자 13~15살로 추정된다. 만약 15살이었다면 응림은 결혼허용연령을 막채웠고, 20살이었다면 당시의 결혼적령기를 넘겼을 듯하다. 현안왕의 공주들은 결혼적령기를 적어도 4~5년이나 과년했던 것으로 보인다.

24) “始馳名於玉鹿 別振風流 俄結職於金貂 肅清海俗 據龍田而種德”(崔致遠, 『孤雲集』 卷 3, 大高福寺碑銘).

25) “朔膺康 年雖幼少 有老成之德”(『三國史記』 憲安王 5年 1月 29日); 권영오, 「김위흥과 진성왕대 초기 정국 운영」, 『대구사학』 74, 대구사학회, 2004, 32쪽; 송은일, 앞의 논문, 131쪽, 각주 16번; 황선영, 앞의 논문, 29쪽; Tikhonov, 「景文王의 儒·佛·仙 融和政策」, 『아시아문화』 12,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6, 48쪽.

26) 이기동, 「新羅 花郎徒의 社會學的 考察」, 『역사학보』 82, 역사학회, 1979, 14쪽.

27) “王會群臣於臨海殿 王族膺康年十五與爲 王欲試其志問曰: 汝爲國仙游學有日 得無見善人者乎” 對曰: “臣嘗見三人者”(『東國通鑑』 憲安王 4年 9月).

28) “時年十五從國仙游學 九月王會群臣於臨海殿”(『東史綱目』 卷 5上, 庚辰年 憲安王 4年).

29) “貞觀元年二月四日 詔曰(중략) 男年二十 女年十五之上(중략) 開元(중략) 二十二年二月敕 男年十五 女年十三以上 听婚嫁”(『唐會要』 卷 83, 嫁娶).

30) 이영호, 「통일신라시대의 왕과 왕비」, 『신라사학보』 22, 신라사학회, 2011, 11쪽.

당시의 결혼적령기를 고려하면, “헌안왕은 계명의 아들인 응림이 장성하기만을” 기다렸던 듯하다.<sup>31)</sup> 본 연구는 헌안왕 4년(860)의 응림 나이를 15살로 판단하고, 응림이 문성왕 6년(844)에 태어났다고 본다. [43]희강왕의 아들인 계명과 [45]신무왕의 딸인 광화부인이 혼인했던 시점의 하한은 문성왕 5년(843)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sup>32)</sup>

넷째, 三善人(三美行者)을 살펴본다. 善行과 美行은 뜻이 거의 같다고 본다. 삼선인(삼미행자)은 ①고귀했음에도 겸손하게 아래에 자리했던 사람, ②부자였음에도 겸소했던 사람, ③권세와 영화가 있었음에도 위세를 부리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티코노브는 겸하·겸소·자비, 조남육은 겸손·겸소·관용으로 요약했다.<sup>33)</sup> 그런데 ①겸하와 ③관용은 겸손의 측면에서 약간 중첩되는 듯하다. 三善人(三美行者)에 대한 기존의 해석은 다음과 같이 대략 3가지로 나뉘질 수가 있다.

하나의 해석은 지방호족 또는 위정자들의 실상을 비판했다는 것이다.<sup>34)</sup> 이기백은 응림이 목격했던 지방호족들 중에는 善人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았음을 지적했다고 보았다. 김현룡은 응림이 三善과 반대되는 행동들을 목격했던 것이며, “왕이나 權貴家 또는 부호들에게 일대 각성을 촉구한 충고”이자 “문란해진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아야겠다는 결의를 진언”했던 것이라 했다. 이를 바탕으로 김기창도 응림의 대답은 “당시 사회악과 부조리를 지적한 것”이며, “당대 위정자들에 대한 일대 각성을 촉구한 충고”였다고 했고, 심치열도 “권력의 횡포와 부호들의 사치로 문란해진 당대 사회의 진면목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해석했다.

31) 송은일, 앞의 논문, 147쪽.

32) 일연이 ‘15살의 화랑’을 ‘20살의 국선’으로 고쳐 적었던 이유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런 유형의 불일치는 알영이 태어난 옆구리, 탈해의 출생국명, 알지의 탄강시점, 옥문지에 개구리가 모여 울었던 계절 등과 같이 신화나 설화에서 자주 발견된다(『蝦蟆大集宮西玉門池』, 『三國史記』善德王 5年 夏五月: “玉門池冬月衆蛙集鳴”, 『三國遺事』紀異, 善德王 知幾三事).

33) Tikhonov, 앞의 논문, 64쪽; 조남육, 「신라 화랑도 관점에서 본 김응림(경문왕)의 화랑정신」, 『도덕윤리와 교육』 51, 한국도덕윤리교육학회, 2016, 87쪽.

34) 이기백, 「上大等考」, 『역사학보』 19, 역사학회, 1962, 48쪽; 김현룡, 『한국고설화론』, 서울: 새문사, 1984, 263쪽; 김기창,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說話考」, 『진리논단』 2, 천안대학교, 1998, 73~74쪽; 심치열, 앞의 논문, 307쪽.

다른 하나의 해석은 三善이 화랑정신이었던다는 것이다.<sup>35)</sup> 이기동은 “화랑으로서의 그의 실제 견문을 이야기한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그의 儒學에 대한 지식을 갖고, 당시 화랑도의 덕목을 윤색, 부회한 것”이라 보았다. 삼선인은 응림이 실제로 목격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화랑정신을 유교적 개념으로 표현하고, 의인화했던 것이라 했다. 조남옥은 세 덕목이 “김응림의 화랑정신”이었다고 했다.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은 왕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라는 것이다.<sup>36)</sup> 티코노브는 응림의 도덕주의 가치관을 “철학적 이론보다는 실천을 더 중요시”하면서 유교와 도교의 용어들로 표현했던 것으로 보았다. 고운기는 “왕이 되는 자가 가져야할 襟度”에 관한 대답이었다고 했고, 이강엽은 “유교 윤리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당연시되는 행동”에 대한 언급이었다고 해석했다.

그런데 응림이 지방호족들의 행태를 비판했을 수는 있었겠지만, “왕이나 權貴家 또는 부호들”을 비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응림이 현안왕의 치세를 면전에서 비판했을 리는 없고, 더구나 사위로 지명될 자리에서 그랬을 리는 더욱 없어 보인다. 또한 임해전에는 당대에 으뜸가는 권력·재력을 갖춘 진골귀족들이 모였을 텐데, 어린 응림이 친족어른들을 은유적이나 역설적으로라도 비판했다고 보기가 어렵다.

三善이 화랑정신, 왕의 덕목, 도덕적 가치관이라는 등의 해석도 응림의 대답이 “보통 사람들은 생각해낼 수 없을 만큼 특별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기가 어렵다.<sup>37)</sup> 삼선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었고, 현안왕으로 하여금 응림의 賢을 알게 하는 동시에 눈물을 흘리도록 했었던 것이었다.

35) 이기동, 「신라 하대의 왕위계승과 정치과정」, 『역사학보』 85, 역사학회, 1980, 29쪽; 조남옥, 앞의 논문, 87쪽.

36) Tikhonov, 앞의 논문, 64쪽; 고운기,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삼국유사』, 서울: 현암사, 2002, 264쪽; 김영수, 「景文大王 驢耳說話의 再解釋」, 『동아시아고대학』 20, 동아시아고대학회, 2009, 265쪽; 이강엽, 「삼국유사 제48대 경문대왕조 텍스트의 안과 밖」, 『구비문학연구』 43, 한국구비문학회, 2016, 137쪽.

37) 이강엽, 앞의 논문, 138쪽.

### 3. 삼선인의 실제 추정

경문왕 즉위설화의 삼선인 이야기는 현안왕 4년(860)에 월지의 임해전에서 거행된 왕위승계를 위한 시험에서 응림이 제출한 답안과 같은 성격으로 봐도 좋을 듯하다. 현안왕의 반응과 주저하지 않은 결정을 보면, 응림의 답변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고, 현안왕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문제의 유출, 예상문제의 적중, 윤색된 즉위설화 등의 모든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삼선인 답안은 출제자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했었다고 봐야할 것이다.

월지의 임해전은 왕위승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월지는 문무왕 14년(674)에 조성되었고, 월지에 동궁은 문무왕 19년(679)에 건립되었고, 월지의 임해전은 동궁과 거의 동시에 완성되었다고 여겨진다.<sup>38)</sup> 왕위계승자로 결정된 태자가 거처하던 곳이 동궁이었고, 월지의 동궁을 월지궁이라 했고, 동궁의 영역 내에 임해전이 있었다.<sup>39)</sup> 월지, 임해전, 태자의 거처를 총칭하여 월지궁 또는 동궁이라 했을 듯하다.

본 연구는 현안왕이 삼선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음에 주목한다. 삼선인은 현안왕에게 슬픈 기억을 떠올리게 했을 듯하다. 그리고 응림이 왕위승계와 무관한 엉뚱한 이야기를 했을 리는 없을 것이므로 그 슬픈 사연은 왕위승계와 연관되었을 듯하다. 특히 왕위승계와 관련된 슬픈 사연이 동궁·월지·임해전을 배경으로 전개되었다면, 응림의 삼선인 답안은 상황과 맥락까지도 반영한 답안이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런 조건들을 최대한 충족하면서 동시에 ①고귀했음에도 겸손하게 아래에 자리했던 사람, ②부자였음에도 겸소했던 사람, ③권세와 영화가 있었음에도 위세를 부리지 않았던 사람을 『삼국사기』에서 각각 찾아보았다.

38) “宮內穿池造山 種花草 養珍禽奇獸”(『三國史記』文武王 14年 2月); “創造東宮 始定內外諸門 額號 四天王寺成”(『三國史記』文武王 19年 8月); “宴羣臣於臨海殿”(『三國史記』孝昭王 6年 9月).

39) “入月池宮”(『三國史記』憲德王 14年 1月); “重修臨海殿 新作東宮萬壽房”(『三國史記』哀莊王 5年 7月); “太宗入東宮 除太子舍人”(『舊唐書』卷 73, 列傳 23, 兄子 元敬); 전덕재, 「신라 東宮의 변화와 臨海殿의 성격」, 『사학연구』 127, 한국사학회, 2017, 7쪽.

첫째, 고귀했음에도 겸손하게 아래에 자리했던 사람은 현안왕의 외조부 충공을 지칭하는 듯하다. 앞서 서술했듯이 [38]원성왕의 장남 인겸의 아들로는 ①준용([39]소성왕), ②연승([41]현덕왕), ③수종([42]흥덕왕), ④충공이 있었다. 그런데 형제들 중에서 충공만이 왕위에 오르지 못했고, 형들의 아래에 자리했었다.

[41]현덕왕은 아들이 있었음에도<sup>40)</sup> 재위 14년(822)에 나이가 46살이었던<sup>41)</sup> 수종([42]흥덕왕)을 부군으로 삼고,<sup>42)</sup> 월지의 동궁에 거처토록 했다. 이는 당대의 형제간 왕위계승이 결정되었음을 의미했다. 그런데 왕위계승자가 형인 수종으로 결정되자, 아우인 충공이 갑자기 두문불출했는데, 이는 원성왕 경신이 주원을 누르고 즉위하기에 직전에 두문불출했음과<sup>43)</sup> 거의 다름이 없어 보인다.

[나-1] 정월에 왕의 친동생인 수종을 부군으로 삼아 월지궁에 들도록 했다. 2월에 눈이 5자나 내리고 나무가 말랐다.<sup>44)</sup>

[나-2] 현덕왕 14년(822) 국왕에게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 친동생 수종을 저지로 삼아 월지궁에 들도록 했다. 그때에 각간 충공이 상대등으로 정사당에 앉아서 중앙과 지방의 관리들을 심사했는데, 하루는 퇴근하여 병이 들었다. (중략) 충공은 두문불출하면서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sup>45)</sup>

40) 현덕왕의 아들은 출가하여 법명을 '심지'라 했다("釋心地 辰韓第四十一主 憲德大王金氏之子也", 『三國遺事』 義解, 心地繼祖). 심지가 출가하여, 현덕왕에게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을 것이다("國王無嗣子", 『三國史記』 卷 45, 祿眞).

41) 흥덕왕 수종은 혜공왕 13년(777)에 태어났다("壽六十是日也", 『興德王陵碑片』).

42) 신라중대에서 [32]효소왕이 아우인 [33]성덕왕 용기에게 왕위를 물려주었고, [34]효성왕이 아우인 [35]경덕왕 현영을 태자로 책봉하고 왕위를 물려주었다("封波珍滄憲英爲太子", 『三國史記』 孝成王 3年 5月). 그러나 신라의 왕위계승 기본원칙이 직계적자계승이었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43) "夢脫幪頭著素笠 把十二絃琴入於天官寺井中 覺而使人占之曰: '脫幪頭者失職之兆 把琴者著枷之兆 入井入獄之兆' 王聞之甚患杜門不出"(『三國遺事』 紀異, 元聖大王).

44) "春正月 以母弟秀宗爲副君 入月池宮 二月 雪五尺 樹木枯"(『三國史記』 憲德王 14年).

45) "十四年 國王無嗣子 以母弟秀宗爲儲貳 入月池宮 時忠恭角干爲上大等 坐政事堂 注擬內外官 退公感疾...遂告暇三七日 杜門不見賓客"(『三國史記』 卷 45, 列傳 5, 祿眞).

수종은 월지궁에 들어가기에 앞서 상대등에서 물러났고,<sup>46)</sup> 충공이 상대등에 올랐다고 추정된다. 상대등 충공은 헌덕왕 14년(822) 1월의 부군지명을 예상치 못했었거나, 예상했었다고 하더라도 막상 실행이 되자 깊은 고민에 빠졌었던 듯하다. 그런데 원성왕 경신이 칙거하자 책략가 여삼이 찾아왔듯이, 충공이 칙거하자 책략가 녹진이 찾아왔다고 한다. 그렇다면 충공이 원성왕 경신처럼 무력으로 왕위를 차지할 생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가 어려울 듯하다. 그러나 녹진은 여삼과는 다른 방책을 제안했음이 분명하다.<sup>47)</sup> 충공은 녹진의 말을 듣고 병에서 말끔하게 벗어나 곧장 입궁했으니 충공의 병은 결코 심장병이었을 수는 없겠고, 마음의 병이었음이 틀림없다.

[나-3] 충공은 헌덕왕에게 녹진의 말을 낱낱이 아뢰었다. 헌덕왕은 “과인이 임금으로 있고 卿이 재상으로 있는 터에,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저군에게 알리지 않을 수 없으니 월지궁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했다. 저군이 그 말을 듣고 궁궐로 들어와서 “일찍이 듣기에 임금이 밝으면 신하가 정직하다고 했는데, 이는 나라의 아름다운 일입니다”라고 경하했다.<sup>48)</sup>

충공은 신라발전과 화평을 위해 상대등 임무에 충실하기로 결심했음을 헌덕왕과 부군 수종에게 알렸고, 형들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아우 충공의 결정에 기뻐했었다고 한다. 충공은 헌덕왕 14년(822) 1월에 형인 수종([42]헌덕왕)이 [41]헌덕왕의 부군으로 월지궁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형들의 아래에 상대등으로 남기로 결정했다. 결국 충공은 왕위에 오르지 못했고, 그의 아들인 明이 [44]민애왕이 되었으나 1년 만에 살해되는 슬픈 일이 벌어진다.

46) “上大等金崇斌卒 伊滄金秀宗爲上大等”(『三國史記』 憲德王 11年 2月).

47) 녹진의 요점은 “형벌과 정치가 믿음직스럽고, 국가가 화평해지도록 할 것”이었다(“則刑政允穆 國家和平 雖曰開孫弘之閣 置曹參之酒”, 『三國史記』 卷 45, 列傳 5, 祿眞). 녹진이 실제로 제시한 대응전략은 『삼국사기』의 「녹진전」에서 드러나지 않는 듯하다.

48) “王曰: ‘寡人爲君 卿爲相 而有人直言如此 何喜如焉 不可使儲君不知 宜往月池宮’ 儲君聞之 入賀曰: ‘嘗聞君明則臣直 此亦國家之美事也’”(『三國史記』 卷 45, 列傳 5, 祿眞).

둘째, 부자였음에도 검소했던 사람은 [42]흥덕왕(재위: 826~836)으로 판단된다. 흥덕왕은 재위 3년(828)에 “빨리 부자가 되는 술수가 있다”고 현혹했던 妖人을 처벌했고, 7년(832)에 기근이 들자 음식을 줄였고, 9년(835)에는 사치금지령을 내리면서 “풍속이 각박해져 백성들이 다투어 사치와 호화를 일삼고, 진기한 외래품만을 좋아하여 순박한 우리 것을 도리어 싫어함은” 잘못이라 하교했다.<sup>49)</sup> 흥덕왕 수종에게는 월지궁에서 벌어진 왕위계승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슬픈 사연이 있다.

흥덕왕 수종이 월지궁에 들어가기 이전의 정국은 매우 불안했다. 헌덕왕 7년(815)에 기근이 들어 도적떼가 봉기했고, 8년에도 백성들이 굶주렸고, 9년에는 많은 백성들이 굶주려 죽었고, 11년에도 도적떼가 봉기했고, 12년에도 기근이 계속되었고, 13년(821)에는 배고픔에 자식을 파는 일도 생겼다.<sup>50)</sup> 이어서 헌덕왕 14년(822) 1월에 흥덕왕 수종이 헌덕왕의 부군으로 월지궁에 들어갔다. 당시에 “헌덕왕은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국정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추정되고, 상대등 충공은 병부령을 겸했다고 여겨진다.<sup>51)</sup> 그런데 불과 두어 달이 지난 헌덕왕 14년(822) 3월에 김현창이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이 진압되었던 시점은 알 수가 없지만, 그 직후에 각간 충공의 딸인 정교부인이 태자비로 들어졌다.

[나-4] 청주 태수의 청사 남쪽 연못에 이상한 새가 나타나서 사흘 만에 죽으니, 현창이 패망할 징조였다. 각간 충공의 딸 정교를 태자비로 삼았다.<sup>52)</sup>

49) “妖人 自言有速富之術 衆人頗惑之... 投棄其人遠島”(『三國史記』 興德王 3年 4月); “春夏旱 赤地 王避正殿 減常膳”(『三國史記』 興德王 7年); “興德王即位九年... 民競奢華 只尙異物之珍奇 却嫌土產之鄙野”(『三國史記』 卷 33, 雜誌 2, 色服). 사치금지령의 배경, 결과, 의미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채미하, 「신라 흥덕왕대의 정치와 儀禮」, 『신라문화』 42, 신라문화연구소, 2013, 293~294쪽).

50) “春 民饑 賣子孫自活 夏四月 侍中金忠恭卒 伊滄永恭爲侍中 善州都督憲昌 改爲熊川州都督”(『三國史記』 憲德王 13年).

51) 손흥호, 앞의 논문, 306쪽, 312쪽.

52) “憲昌敗亡兆也 聘角干忠恭之女貞嬌 爲太子妃”(『三國史記』 憲德王 14年 3月).

부군·저의와<sup>53)</sup> 태자의 관계, 월지궁과 동궁의 관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논란이 많다.<sup>54)</sup> 본 연구는 월지의 동궁이 월지궁이었음이 분명하다고 본다. 또한 부군(=저의)과 태자를 따로 두어 다툼을 부추겼을 리가 없을 터이니 부군은 태자로 봐야한다.<sup>55)</sup> 헌덕왕 14년(822) 정월에 수종이 부군(=저의=태자)으로 책봉되어 월지궁(=동궁)으로 거처를 옮겼을 때의 태자비는 [39]소성왕의 딸인 장화부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김현창의 반란을 진압한 직후에 충공은 태자비의 교체를 요구했던 듯하다. 이런 요구가 책략가 녹진에 의해 설계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태자비가 정교부인으로 교체되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수종의 元妃가 소성왕의 딸인 장화부인, 次妃가 충공의 딸인 정교부인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sup>56)</sup>

흥덕왕 수종(777~836)의 즉위시점 왕비는 태자비인 충공의 딸 정교부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묘하게도 『삼국사기』의 흥덕왕 즉위기록은 매우 짧고,<sup>57)</sup> 왕비에 대한 서술이 없다.<sup>58)</sup> 흥덕왕 원년기록에서 충공의 딸 정교부인은 諱되었던 듯하다.

53) 儲貳는 副君, 太子, 世子, 儲君과 마찬가지로 왕위계승자를 말한다(“帝見表乃思儲貳時有天唱空”, 『三國遺事』紀異, 太宗春秋公: “冊子構爲王太子 其文曰: ‘古先哲王 撫有方夏 必立儲貳...’”, 『高麗史』卷 14, 睿宗 10年 2月).

54) 副君·儲貳와 太子에 대해서는 동일하다는 通說이 있고(이기백, 앞의 논문, 44쪽), 서로 다르다는 異說이 있다(조범환, 「新羅 下代 憲德王의 副君 설치와 그 정치적 의미」, 『진단학보』 110, 진단학회, 2010, 35쪽). 한편 월지궁과 동궁에 대해서도 동일하다는 通說이 있고(홍승우, 「신라 副君과 月池宮」, 『동양학』 70,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8, 63~84쪽), 다르다는 異說이 있다(김병근, 「신라 헌덕왕대의 副君 秀宗의 정체성과 太子」, 『동국사학』 55,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3, 206쪽).

55) 신문왕의 副君이었던 원자(687~692)가 신문왕의 아우에 의해 주멸되었던 바가 있다(“淨神太子弟副君 在新羅爭位誅滅”, 『三國遺事』塔像, 溟州五臺山寶叱徒太子傳記: “淨神王之弟與王爭位 國人廢之”, 『三國遺事』塔像, 臺山五萬眞身). ‘副君’은 폐위된 태자가 생존해 있었을 때에 사용한 명칭이었을 가능성이 있다(“新羅淨神太子寶叱徒 與 弟孝明太子”, 『三國遺事』塔像, 溟州五臺山寶叱徒太子傳記).

56) 손흥호, 앞의 논문, 314쪽.

57) 원성왕 176자, 소성왕 102자, 애장왕 90자, 헌덕왕 104자, 흥덕왕 19자이다.

58) “興德王立 諱秀宗 後改爲景徽 憲德王同母弟也”(『三國史記』興德王 元年). 『삼국사기』는 기혼의 경우 원년기록에서 왕비를 밝히는 것이 원칙인데, 흥덕왕은 예외이다.

[다-1] 왕비 章和부인이 사망하여 定穆王后로 추봉했다. 왕이 왕비를 잊지 못하여 슬퍼했다[주석: 장화부인은 성이 김씨이고, 소성왕의 딸이다].<sup>59)</sup>

[다-2] 왕비는 昌花부인으로 시호가 定穆王后이고, 소성왕의 딸이다. 왕릉은 안강 북쪽의 비화양에 있고, 왕비와 함께 묻었다.<sup>60)</sup>

흥덕왕은 짝을 잃은 앵무새 노래를 짓고, 장화(=창화)부인을 그리워하다가, 결국 장화부인의 곁에 묻혔다.<sup>61)</sup> 그리움의 대상은 소성왕의 딸인 장화부인이었지, 충공의 딸인 정교부인이 아니었다. 흥덕왕의 장화부인에 대한 그리움은 많은 부분이 죄책감이었을 듯하다. 참고로 흥덕왕비가 싸서였다는 唐의 책봉기록은 무시해도 무방하다.<sup>62)</sup>

셋째로 권세·영화가 있었음에도 위세를 부리지 않았던 사람은 [46]문성왕(재위: 839~857)으로 판단된다. 문성왕은 “과인이 미미한 자질로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위로는 하늘에 죄를 지을까봐 두려워했고, 아래로는 백성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을까 근심하여, 밤낮으로 전전긍긍함이 깊은 물과 얇은 얼음을 건너는 것과 같았다”고 했다.<sup>63)</sup> 문성왕은 재위 9년(847) 2월에 임해전을 중수하고, 8월에 태자를 책봉했지만, 불행히도 14년(852) 11월에 동궁의 태자를 잃었다.<sup>64)</sup> 당시에 상대등이었던 현안왕 의정도 從孫의 죽음을 함께 슬퍼했을 것이다.

59) “妃章和夫人卒 追封爲定穆王后 王思不能忘 悵然不樂 (중략) [原註: 章和 姓金氏 昭聖王之女也]”(『三國史記』 興德王 1年 12月).

60) “妃昌花夫人 諡定穆王后 昭聖之女 丙午立 理十年 陵在安康北比火壤 與妃昌花合葬”(『三國遺事』 王曆, 第四十二 興德王).

61) “而知其影乃哀鳴而死”(『三國遺事』 紀異 興德王 鸚鵡); “王薨 諡曰興德 朝廷以遺言 合葬章和王妃之陵”(『三國史記』 興德王 11年 12月).

62) “妻朴氏爲妃”(『三國史記』 興德王 2年 1月). 唐律은 같은 성씨끼리의 혼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總麻 이내의 근친상간을 교수형에 처한다고 했다(“諸同姓爲婚者 各徒二年 總麻以上以姦論”, 『唐律疏議』 卷 14, 戶婚 下, 同姓爲婚; “兄弟之女者 絞”, 『唐律疏議』 卷 26, 雜律 上, 姦父祖妾等). 이에 신라왕실의 근친혼은 唐에 비밀로 부쳐졌을 것이다.

63) “上恐獲罪於天鑑 下慮失望於人心 夙夜兢兢 若涉淵水”(『三國史記』 文聖王 19年 9月).

64) “爲王太子”(『三國史記』 文聖王 9年 8月); “王太子卒”(『三國史記』 文聖王 14年 11月).

#### 4. 삼선인의 의미 추정

응림이 말했던 ①고귀했음에도 겸손하게 아래에 자리했던 사람은 [47]현안왕과 계명의 외조부 충공, ②부자였음에도 겸소했던 사람은 [42]흥덕왕, ③권세와 영화가 있었음에도 위세를 부리지 않았던 사람은 현안왕 의정에게 왕위를 물려준 [46]문성왕으로 추정되었다. 현안왕이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왕위계승과 관련해 동궁에서 전개되었던 슬픈 사건들 때문이었을 듯하다. 그런데 응림이 충공, 흥덕왕, 문성왕을 삼선인으로 지목했던 이유가 불분명하다. 본 연구는 삼선인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38]원성왕대부터 [48]경문왕대에 이르는 왕위승계과정을 살펴본다.

신라하대는 [37]선덕왕대(780~785)의 과도기를 거친 후, 원성왕대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왕위승계의 우선순위가 높았던 김주원을 제치고 왕위에 오른 원성왕의 즉위와<sup>65)</sup> 재위 과정은 다양한 설화들로 미화되어있다. 원성왕계는 <표 2>과 같이 인검계와 예영계로 나뉘졌다.<sup>66)</sup>

<표 2> 원성왕계의 분화와 왕위계승

인검	→ [39]소성왕 준용 → [40]애장왕 청명
	→ [41]현덕왕 언승
	→ [42]흥덕왕 수종
	→ 충공 → [44]민애왕 명
예영	→ 현정 → [43]희강왕 제룡 → 계명 → [48]경문왕 응림
	→ 균정 → [45]신무왕 우징 → [46]문성왕 경응
	→ [47]현안왕 의정

65)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선덕왕 6년(785) 1월에 북천이 범람했다고 기록했지만(“至十三日薨 諡曰宣德”, 『三國史記』 宣德王 6年 1月: “大雨 關川水漲 周元不得渡 或曰 卽人君大位 固非人謀 今日暴雨 天其或者不欲立周元乎”, 『三國史記』 元聖王 元年: “未幾宣德王崩 國人欲奉周元為王將迎入宮 家在川北忽川漲不得渡”, 『三國遺事』 紀異, 元聖大王), 겨울철에 북천이 얼어붙을지언정 범람했을 리는 없다.

66) 원성왕계가 전면적으로 분지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이재환, 「新羅 眞骨의 ‘家系 分枝化’에 대한 재검토」, 『대구사학』 127, 대구사학회, 2017, 79쪽).

[38]원성왕(재위: 785~798)이 승하한 후, 장손인 준옹([39]소성왕)이 왕위를 이었다. [39]소성왕 원년(799)에서 [42]흥덕왕 몰년(836)까지 약 38년간에 걸쳐 왕위는 인계계에 의해 독점되었고, [40]애장왕을 제외하면 형제간의 왕위승계가 이뤄졌다.

[39]소성왕(재위: 799~800)은 재위 2년(800)에 13살의 청명([40]애장왕)을 태자로 책봉한 직후에 승하였다.<sup>67)</sup> 흥미롭게도 소성왕은 숙부들에 의해 살해된 애장왕과 마찬가지로 葬地 기록이 없다.

[40]애장왕(재위: 800~809) 청명은 소성왕의 태자로 13살에 즉위하여 병부령 언승([41]현덕왕)의 섭정을 받았다. 그러나 재위 10년(809)에 숙부인 언승과 언승의 아우인 이찬 제옹에 의해 살해당했다.<sup>68)</sup> 이찬 제옹의 실체에 대해서는 적어도 3개의 가설이 있다.

첫째 가설은 『삼국유사』의 왕력에 언승([41]현덕왕)과 함께 살해자로 기록되어있는<sup>69)</sup> 수증([42]흥덕왕)으로 본다. 그런데 소성·애장왕대에 걸쳐서 수증의 활동기록이 없다. 수증은 [39]소성왕의 딸인 장화부인과 결혼했고, [40]애장왕이 그의 처남이었다.<sup>70)</sup> 둘째 가설은 언승과 함께 애장왕대의 실세였던 충공을 지목한다. 애장왕 9년(808)에 당현종은 신라왕의 숙부인 언승과 仲恭에게 문극을 하사했는데,<sup>71)</sup> ‘仲恭’은 ‘重恭’, ‘忠孝’와 마찬가지로 忠恭을 지칭함이 거의 확실하다.<sup>72)</sup> 셋째 가설은 다소 막연하지만, 언승의 알려지지 않은 다른 동생이거나 현덕왕 원년(809)에 상대등으로 임명된 김승빈이라 추측한다.<sup>73)</sup>

67) “封王子爲太子 王薨 諡曰昭聖”(『三國史記』 昭聖王 2年 6月).

68) “王叔父彥昇與弟伊滄梯邕 將兵入內 作亂弑王”(『三國史記』 哀莊王 10年 7月). 『春秋公羊傳』은 “왕을 시해한 주체가 토벌되지 않으면, 왕의 장례를 기록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삼국사기』는 이런 원칙을 따랐던 듯하다(장활식, 앞의 논문, 2018a, 125쪽).

69) “王之叔父 憲德·興德 兩伊干所害而崩”(『三國遺事』 王曆, 第四十哀莊王).

70) “妃昌花夫人 諡定穆王后 昭聖之女”(『三國遺事』 王曆, 第四十二興德王).

71) “仍賜王叔彥昇及其弟仲恭等門戟”(『三國史記』 哀莊王 9年 2月).

72) “妃文穆王后 忠孝角干之女 一云重恭角干”(『三國遺事』 王曆, 僖康王); “妃文穆夫人 葛文王忠恭之女”(『三國史記』 僖康王 元年); 손흥호, 「9세기 전반 신라의 정치동향과 충공의 역할」, 『한국고대사연구』 83, 한국고대사학회, 2016, 309쪽.

73) 김창검, 「新羅 下代の 仁謙系 王權과 金崇斌」, 『신라사학보』 1, 신라사학회, 2004, 187쪽; “以伊滄金崇斌爲上大等”(『三國史記』 憲德王 元年).

위의 가설들 중에서 어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듯하지만, 애장왕 9년(808)에 권력의 핵심이었던 언승과 증공(=충공)이 이듬해(809)에 애장왕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을 상 싶다.<sup>74)</sup> 만약 충공이 애장왕을 살해했다면, 善行·美行이 아니라 惡行·醜行이었다.

[41]현덕왕(재위: 809~826)은 인겸계의 친동생인 수종과 충공, 예영계의 균정 등을 고루 등용했다. 또한 예영의 맏아들인 현정도 배려했다. 그런데 『삼국사기』는 현덕왕 13년(821)에 “시중 金忠恭이 죽었다”라고 했는데,<sup>75)</sup> 忠恭이 그 이후에도 건재했던 것으로 『삼국사기』에서 나타난다.<sup>76)</sup> 이 의문의 기록에 대해서는 다음의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첫째는 金忠恭과 충공이 동명이인일 가능성이다.<sup>77)</sup> 그러나 동시대 최고 위층의 동명이인을 상상하기가 어렵다. 시중직은 왕의 최측근이 아니고서는 오를 수 없는 자리였고, 신라하대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둘째는 “卒”이 ‘退’자의 誤記였을 가능성이다.<sup>78)</sup> 그런데 글자가 비슷하지 않다. 셋째는 이 즈음에 “심상치 않은 흑막이” 깔렸고, “석연치 않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다.<sup>79)</sup> 金忠恭의 죽음이 『삼국사기』의 은휘였다면, 충공은 현덕왕 13년(821) 4월경에 모종의 기만전술을 펼쳤을 듯하다. 어쨌든 『삼국사기』는 현덕왕 9년(817) 1월에 “金忠恭을 시중으로 삼았다”고 했고, 13년(821) 4월에 “시중 金忠恭이 죽었다”고 했고, 14년(822) 정월에 각간 忠恭이 상대등으로 일했다고 서술했다.<sup>80)</sup> 『삼국유사』에는 일연의 서술의도가 아직도 파악되지 않은 「조설」조를 제외하면,<sup>81)</sup> 이와 연관될 수 있는 기록이 없다.

74) 선석열, 「신라 현덕왕대의 정치과정과 정교부인의 혼인 문제」, 『신라문화』 48, 신라문화연구소, 2016, 184쪽; 손흥호, 앞의 논문, 309쪽.

75) “侍中金忠恭卒”(『三國史記』 憲德王 13年 4月).

76) “角干忠恭迺允膺 守蚊火關門”(『三國史記』 憲德王 14年 3月).

77) 이기동, 『新羅下代 王位繼承과 政治過程』, 서울: 일조각, 1984, 162쪽.

78) 손흥호, 앞의 논문, 320쪽, 각주 68번.

79) 후보돈, 「新羅 下代 金憲昌의 亂과 그 性格」, 『한국고대사연구』 51, 한국고대사학회, 2008, 242쪽.

80) “以伊滄金忠恭爲侍中”(『三國史記』 憲德王 9年 1月); “侍中金忠恭卒”(『三國史記』 憲德王 13年 4月); “忠恭角干爲上大等 坐政事堂”(『三國史記』 卷 45, 列傳 5, 祿眞).

81) “第四十一 憲德王 元和十三年 戊戌 三月 十四日 大雪”(『三國遺事』 紀異, 早雪).

[41]현덕왕은 충공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후인 현덕왕 14년(822) 1월에 수종([42]흥덕왕)을 부군(=태자)으로 책봉했다. 이어서 현덕왕 14년(822) 3월에 김현창이 반란을 일으켰다.

[라-1] 웅천주 도독인 현창이 그의 아버지 주원이 임금에 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역을 일으켰다. 서울의 8방을 지키고, 군사들이 진압에 나섰다. 일길찬 장웅, 잡찬 위공, 파진찬 제릉(倂凌)이 출발하고, 이찬 균정, 잡찬 용원, 대야찬 우징 등이 삼군을 이끌고 출정했고, 각각 충공과 잡찬 윤응은 蚊火의 관문을 지켰다.<sup>82)</sup>

예영계의 균정과 그의 아들 우징([45]신무왕) 등이 삼군을 이끌고 반란의 진압에 나섰다, 각각 충공은 왕도의 관문에서 최후방어진을 치고 군사들을 총지휘했을 것이다. 병력의 지휘체계로 볼 때, 현덕왕 14년(822)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은 인겸계의 각각 충공이 쥐고 있었고, 현정계보다는 균정계의 군사력이 강력했을 상 싶다. 김현창의 반란이 쉽게 제압되었던 이유는 “신라 중앙의 지배세력”이 “합심하여 적극적이고도 신속하게 共同對處”했기 때문이라 평가된다.<sup>83)</sup> 공동대처의 핵심이 충공이었을 것이다. 원성왕 경신이 김주원을 제압한 이후에 원성왕의 손자 충공이 김주원의 아들 김현창을 거둬 제압했던 것이다.

[42]흥덕왕(재위: 826~836)의 왕위승계자는 일찌감치 충공으로 정해졌던 듯하다. 충공은 「봉암사지증대사적조탑비」(893)에서 흥덕왕의 선강태자로 나타난다.<sup>84)</sup> 그러나 충공은 흥덕왕 10년(835) 2월경에 흥덕왕보다 앞서 사망했기에 직계적자계승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인겸계의 마지막 형제계승을 잇지 못했다고 여겨진다.<sup>85)</sup>

82) “熊川州都督憲昌 以父周元不得爲王 反叛...一吉滄張雄先發 迺滄衛恭波珍滄倂凌繼之 伊滄均貞迺滄雄元大阿滄祐徵等 掌三軍徂征 角于忠恭迺滄允膺 守蚊火關門”(『三國史記』憲德王 14年 3月).

83) 주보돈, 앞의 논문, 275쪽.

84) “興德大王纂戎 宜康太子監撫 去邪翳國 樂善肥家”(『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

85) 이기동, 앞의 논문, 1980, 20쪽.

흥덕왕은 재위 3년(828)에 균정의 아들인 우징([45]신무왕)을 시중으로 임명하고, 재위 10년(835) 2월에 상대등 충공이 사망하자 균정을 상대등으로 임명하면서 시중을 우징에서 충공의 아들인 明(817~829)으로 교체했다.<sup>86)</sup> 흥덕왕은 재위 11년(836) 12월에 승하였다. 흥덕왕이 왕위계승자를 지목하지 않았을 리가 없었을 터인데, [42]흥덕왕 몰년(836)부터 [45]신무왕 원년(839)까지 왕위쟁탈전이 전개되었다.

〈표 3〉 왕위쟁탈전을 벌인 균정, 희강왕, 민애왕, 신무왕

원성왕 → 인겸 → 충공 → [44]민애왕 明  
 원성왕 → 예영 → 헌정 → [43]희강왕 제룡 → 계명  
 원성왕 → 예영 → 균정 → [45]신무왕 우징 → [46]문성왕 경응

흥덕왕의 승하 이후에 균정과 제룡([43]희강왕)이 모두 왕이 되고자하여 다툼이 시작되었다고 한다.<sup>87)</sup> 그렇다면 인겸계의 흥덕왕은 예영계를 대상으로 왕위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위양 또는 공유하고자 의도했었던 듯하다. 흥덕왕 10년(835) 2월에 19살의 나이로<sup>88)</sup> 시중에 올랐던 明(817~839)은 당시의 왕위승계대상이 아니었다.

처음에 상대등 균정이 왕궁을 선점했다. 그러나 國人들이 아닌 측근인 김양(808~857), 아들인 우징([45]신무왕), 매서인 예징 등에 의해 왕으로 옹립되었고, 금군·관군이 아닌 족병으로 적판궁을 회위했다.<sup>89)</sup> 이는 國人들이 주권을 왕으로 옹립하려 했지만, 상대등 경신([38]원성왕)이 왕궁을 선점했음과<sup>90)</sup> 닮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왕위승계의 정당성이 균정에게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sup>91)</sup>

86) “拜阿滄金均貞爲上大等...大阿滄金明爲侍中”(『三國史記』興德王 10年 2月).

87) “初 興德王之薨也 其堂弟均貞堂弟之子悌隆 皆欲爲君”(『三國史記』僖康王 元年).

88) “開成己未之年 太簇之月下旬有三日 奄奔蒼生春秋二十三”(『敏哀大王石塔舍利壺記』).

89) “奉均貞爲王 入積板宮 以族兵宿衛”(『三國史記』卷 44, 列傳 4, 金陽).

90) “國人欲奉周元爲王將迎入宮...王先入宮即位衛”(『三國遺事』紀異, 元聖大王).

91) 『삼국사기』는 희강왕 제룡에게 왕위승계의 정당성이 있었다고 했다(“金明弒僖康而即位 祐徵弒閔哀而即位 今皆書其實 亦春秋之志也”, 『三國史記』神武王, 史論).

이어서 시중 明을 따른 아찬 利弘, 배훤백 등이 이끈 압도적 군사들에 의해 均정이 주멸되었고,<sup>92)</sup> 김양, 우징 등이 도망쳤다. 흥덕왕 몰년(836)의 왕위다툼은 均정계와 현정계 간에 벌어졌고, 仁鏡계 明이 무력으로 均정계를 제압했고, 現정계의 희강왕이 즉위했다.

[43]희강왕(재위: 836~838) 제릉의 재위기간은 약 13개월에 불과했다. 재위 2년(837) 1월에 상대등으로 仁鏡계의 明, 시중으로 아찬 利弘을 임명했다. 그러나 재위 3년(838) 1월에 상대등 明과 시중 利弘이 반란을 일으켰고, 희강왕은 자결했다.

[44]민애왕(재위: 838~839) 明(817~839)은 仁鏡계 충공의 아들이고, 재위기간이 약 12개월이었다. 상대등 明과 시중 利弘이 왕위를 찬탈하자, 민애왕 1년(838) 2월에 김양이 병사들을 모아서 우징([45]신무왕)이 피신해 있던 청해진으로 들어갔다. 김양은 장보고의 병력들과 함께 민애왕 2년(839) 1월에 왕도를 침공하여 민애왕을 주멸했다.

[45]신무왕(재위: 839~839) 우징은 均정의 아들이었고, 병이 들어 승하였고, 『삼국사기』에 기록된 재위기간은 약 6개월이다. 그의 아들인 경응이 태자로 책봉되어 왕위를 이어받았으니 [46]문성왕이다.

[46]문성왕(재위: 839~857)은 신무왕의 태자였고, 재위기간은 약 18년 2개월에 달했다. 문성왕대의 초반에는 신무왕 우징을 도왔던 공신들이 권력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문성왕 10년(848)에 시중이 위흔(=김명)에서 계명으로 교체되었고, 11년(849)에는 예징이 사망하여 이찬 의정([47]현안왕)이 상대등이 되었다. 그런데 문성왕 9년(847)에 책봉되었던 태자가 14년(852) 11월에 사망하는 큰 불행이 있었다.

신무왕대의 주요 공신들은 모두 사라졌고, 문성왕이 재위 19년(857)에 승하였다. 문성왕은 “효성과 우애가 있고, 명민하고, 너그럽고 인자하여 가히 종묘를 받들 만하고 백성들을 다스릴 만하다”라고 평가한 상대등 의정([47]현안왕)에게 왕위를 잇도록 했다.<sup>93)</sup>

92) “均貞曰 彼衆我寡 勢不可漬”(『三國史記』卷 44, 列傳 4, 金陽).

93) “顧惟舒弗 擲諠靖 先皇之令孫 寡人之叔父 孝友明敏 寬厚仁慈 久處古衡 挾贊王政 上可以祗奉宗廟 下可以撫育蒼生 爰釋重負 委之賢德”(『三國史記』文聖王 19年 9月).

[47] 현안왕(재위: 857~861) 의정은 예영계의 균정계였고, 계명은 예영계의 현정계였다. 예영계는 흥덕왕 몰년(836)에 균정과 현정의 아들인 희강왕 제릉이 왕위다툼을 벌이면서 분열했다. 그 결과로 균정이 인겸계의 明에 의해 흥덕왕 몰년(836)에 주멸되었고, 현정의 아들인 희강왕도 역시 明의 압박으로 재위 3년(838)에 자결했다. 현안왕의 아버지인 균정과 계명의 아버지인 희강왕은 모두 왕위쟁탈전에서 죽임을 당했던 것이다. 예영계의 분열은 균정계와 현정계에 모두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다주었다.

응림의 부친인 계명과 응림의 모친인 광화부인은 서로 원수지간이 되었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관계였다. 계명의 부친인 현정계의 [43]희강왕 제릉은 광화부인의 부친인 [45]신무왕 우징이 옹립한 부친인 균정과 왕위다툼을 벌였다.<sup>94)</sup> 그 과정에 인겸계의 明이 개입하여 양상은 상당히 혼란하게 전개되었지만, 현정계와 균정계에게는 서로를 원망할 여지가 많았을 듯하다.

예영계의 다툼은 [46]문성왕대에 봉합되었던 듯하다. [43]희강왕의 아들인 계명과 [45]신무왕의 딸인 광화부인의 결혼시점은 문성왕대(839~857) 초반으로 추정되며, 그 결실이 문성왕 8년(846)경에 태어난 응림([48]경문왕)이었고, 응림은 태어났을 때부터 현정계와 균정계 간의 화합을 상징했을 듯하다. 화합은 [45]신무왕의 여망이었을 수가 있을 듯하고, [46]문성왕대에 이뤄졌을 것이며, 그 배후에는 [47]현안왕 의정의 적극적인 주도·동조가 있었을 듯하다.

현안왕은 재위 4년(860) 가을 9월에 계명의 아들인 응림을 사위로 맞이하여 균정계의 왕위를 현정계의 장손으로 추정되는 응림에게 되돌려주려 했던 듯하다. 이런 맥락에서 응림은 三善人이 첫째로 아래 자리에 위치했던 충공, 둘째로 겸손했던 흥덕왕, 셋째로 겸손했던 문성왕이라 암시했고, 현안왕은 응림이 말하는 三善人의 실체를 알아챘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충공·흥덕왕·문성왕을 三善이라 했는지도 뻔히 알았을 듯하다.

94) “興德王之薨也 其堂弟均貞堂弟之子悌隆 皆欲爲君 於是 侍中金明 阿滄利弘裴萱伯等 奉悌隆 阿滄祐徵與姪禮徵及金陽 奉其父均貞”(『三國史記』僖康王 元年).

첫째로 응림은 충공을 썬이라 했다. 충공의 전반적 행적은 유교적 관점의 썬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안왕이나 응림의 관점에서 특정사건에 국한해 보면, 썬일 수도 있겠다. 충공은 헌덕왕 14년(822) 1월의 부군지명에 큰 불만을 가졌던 듯하다. 그러나 욕심을 잠시 접어두고,<sup>95)</sup> 인겸계와 예영계의 단합을 이끌어내어 헌덕왕 14년(822) 3월에 발생한 김현창의 반란에 공동으로 대처했음은 원성왕계의 관점에서는 썬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로 응림은 흥덕왕을 썬이라 했다. 형인 흥덕왕을 충공보다 나중에 언급한 이유는 역사적 사건의 전개 또는 역사적 교훈의 중요성 순서에 있었을 듯하다. 흥덕왕은 인겸계가 독점하던 왕위를 몰년(836)경에 예영계에 이양 또는 할애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응림은 문성왕을 썬이라 했다. 문성왕은 헌정계와 균정계의 분열을 봉합하고 예영계의 화목을 시도했던 듯하다. 문성왕은 태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했지만, 태자가 사망하는 불행을 겪었다. 이에 문성왕은 효성, 우애, 지혜, 후덕, 인자함을 모두 갖추고 경험과 능력이 많은 인물을 왕위계승자로 선택했는데, 다름 아닌 현안왕이었다.

현안왕이 응림에게서 듣고자 했던 三善人의 교훈이란 첫째로 신라의 통치와 왕위계승과정에서 분열과 견제가 아닌 화합과 단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둘째로 원성왕계는 하나의 조상을 모시는 왕실이므로 계파를 떠난 권력의 분배나 왕위계승이 바람직하며, 셋째로 분열은 봉합하고, 화목을 도모함이 옳다는 요지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현안왕이 응림에게 부탁하고자 했던 말을 응림이 스스로 말하니 현안왕은 응림의 혜안을 높이 평가한 듯하다. 그러나 응림의 이런 다짐들이 이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경문왕계의 왕위계승은 매우 폐쇄적이었다. 현안왕이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임해전이 위치한 월지의 궁궐을 배경으로 충공과 흥덕왕의 갈등이 전개되었고, 또한 월지의 동궁에서 문성왕의 태자가 사망했던 슬픈 일을 떠올렸기 때문이었을 상 싶다.

95) 충공의 직계자손으로는 민애왕(재위: 838~839)이 유일하게 약 1년간 통치했다.

## 5. 맺음말

본 연구는 응림의 삼선인 이야기를 왕위계승의 정통성을 드높이기 위한 즉위설화의 일부로 보았다. 즉위설화 관련기록에는 隱諱가 적지 않다. 『삼국유사』는 태자 理恭(효소왕)이 옥대의 두 번째 쪽을 시냇물에 담그니 용이 되어서 날아갔다고 했는데,<sup>96)</sup> 理恭이 신문왕의 둘째였기 때문이었을 듯하다. 『삼국사기』 선덕왕 몰년(785)에는 장례기록이 없고, “王薨”이 아닌 “薨”이고, 승하시점도 일자까지 적혀있다.<sup>97)</sup> 왕위에서 자발적으로 물러나려 노력했던 선덕왕은 唐의 책봉이 떨어지자 말자 병을 핑계로 재위 6년(785) 1월 13일에 원성왕 경신에게 양위했던 듯하다.<sup>98)</sup> 본 연구는 응림의 삼선인 이야기에 이와 비슷하게 어떤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으리라 의심했다.

대부분의 설화는 표면적 의미와 내포된 의미를 가진다. 응림이 말한 三善人의 표면적 의미는 기존연구에서 주로 겸손·검소·관용이나 겸허·검소·자비로 파악되었다. 三善人을 표면적 의미로 해석하면, “보통 사람들은 생각해낼 수 없을 만큼 특별한 내용이 아닐뿐더러 삶의 실천에는 미흡했다는 점에서 현답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sup>99)</sup>

본 연구는 三善人의 실체를 추정하고, 三善人에 내포되어있는 의미를 신라의 역사 속에서 왕실운영과 왕위계승에 관해 三善人이 남긴 교훈에서 찾았다. 첫째 善人은 인검계와 예영계의 단합을 이끌었던 충공, 둘째 善人은 인검계에 국한되었던 왕권을 예영계와 공유하려 했던 흥덕왕, 셋째 善人은 현정계와 균정계 간의 화해를 도모했던 문성왕으로 추정했다. 三善人에 내포된 의미는 첫째로 양보와 절충을 통한 단결과 협동, 둘째로 배려와 공유를 통한 조화와 번영, 셋째로 화해와 관용을 통한 균형과 안정에 가까울 듯하다.

96) “乃摘左邊第二窠沉溪 即成龍上天”(『三國遺事』紀異, 万波息笛).

97) “至十三日 薨 諡曰宣德”(『三國史記』宣德王 6年 1月).

98) “王欲遜位 群臣三上表諫 乃止”(『三國史記』宣德王 5年 4月); “唐德宗遣戶部郎中蓋塤 持節冊命王...新羅王 是月 王寢疾彌留”(『三國史記』宣德王 6年 1月).

99) 이강엽, 앞의 논문, 137쪽.

## 참고문헌

### 1. 자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東國通鑑』, 『東國李相國集』,  
『東史綱目』, 『孤雲集』; 「敏哀大王石塔舍利壺記」, 「興德王陵碑片」,  
「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 「聖住寺郎慧和尚白月葆光塔碑」;  
『春秋公羊傳』, 『舊唐書』, 『唐會要』, 『唐律疏議』.

### 2. 논저

고운기,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삼국유사』, 서울: 현암사, 2002.  
권영오, 「김위흥과 진성왕대 초기 정국 운영」, 『대구사학』 74, 대구사학회, 2004.  
\_\_\_\_\_, 「신라하대 왕위계승과 상대등」, 『지역과 역사』 10, 부경역사연구소, 2002.  
김기창,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說話考」, 『진리논단』 2, 천안대학교, 1998.  
김병곤, 「신라 헌덕왕대의 副君 秀宗의 정체성과 太子」, 『동국사학』 55, 동국대  
학교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3.  
김복순, 「삼국유사 속의 삼국사기」, 『동국사학』 62, 동국대학교 동국역사문화  
연구소, 2017.  
김영수, 「景文大王 驢耳說話의 再解釋」, 『동아시아고대학』 20, 동아시아고대학  
회, 2009.  
김창겸, 「新羅 下代の 仁謙系 王權과 金崇斌」, 『신라사학보』 1, 신라사학회,  
2004.  
\_\_\_\_\_, 「신라 憲安王의 卽位와 그 治績」, 『신라문화』 26, 동국대학교 신라문화  
연구소, 2005.  
김현룡, 『한국고설화론』, 서울: 새문사, 1984.  
서정목, 「효소왕의 출생 시기 관련 기록 검토」, 『진단학보』 122, 진단학회,  
2014.  
선석열, 「신라 헌덕왕대의 정치과정과 정교부인의 혼인 문제」, 『신라문화』 48,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6.  
손흥호, 「9세기 전반 신라의 정치동향과 충공의 역할」, 『한국고대사연구』 83,  
한국고대사학회, 2016.

- 송은일, 「新羅下代 景文王系の 成立」, 『전남사학』 22, 호남사학회, 2004.
- 신종원, 「신라오대산사적과 성덕왕의 즉위배경」, 『최영희선생 화갑기념 한국사학논총』, 1987.
- 심치열, 「삼국유사소재 설화의 서사적 계승 연구」, 『국어국문학』 139, 국어국문학회, 2015.
- 안주홍, 「신라 하대 문성왕대의 정국」, 『신라사학보』 19, 신라사학회, 2010.
- 이강엽, 「삼국유사 제48대 경문대왕조 텍스트의 안과 밖」, 『구비문학연구』 43, 한국구비문학회, 2016.
- 이기동, 「신라 하대의 왕위계승과 정치과정」, 『역사학보』 85, 역사학회, 1980.
- \_\_\_\_\_, 「新羅 花郎徒의 社會學的 考察」, 『역사학보』 82, 역사학회, 1979.
- \_\_\_\_\_, 『新羅下代 王位繼承과 政治過程』 일조각:서울, 1984.
- 이기백, 「上大等考」, 『역사학보』 19, 역사학회, 1962.
- 이영호, 「통일신라시대의 왕과 왕비」, 『신라사학보』 22, 신라사학회, 2011.
- 이재환, 「新羅 眞骨의 ‘家系 分枝化’에 대한 재검토」, 『대구사학』 127, 대구사학회, 2017.
- 장활식, 「삼국유사에 나타나는 밀본의 실체」, 『신라문화』 47, 신라문화연구회, 2016.
- \_\_\_\_\_, 「효소왕의 출생연대와 즉위과정」, 『신라문화』 51,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8a.
- \_\_\_\_\_, 「삼국유사 신주편 혜통향룡조의 분석」, 『신라문화』 52,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8b.
- 전덕재, 「신라 東宮의 변화와 臨海殿의 성격」, 『사학연구』 127, 한국사학회, 2017.
- 조남욱, 「신라 화랑도 관점에서 본 김응림(경문왕)의 화랑정신」, 『도덕윤리와 교육』 51, 한국도덕윤리교육학회, 2016.
- 조범환, 「新羅 下代 憲德王의 副君 설치와 그 정치적 의미」, 『진단학보』 110, 진단학회, 2010.
- 주보돈, 「新羅 下代 金憲昌의 亂과 그 性格」, 『한국고대사연구』 51, 한국고대사학회, 2008.
- 채미하, 「신라 흥덕왕대의 정치와 儀禮」, 『신라문화』 42, 동국대학교 신라문화

연구소, 2013.

하정룡, 「新羅上代 王位繼承 研究-王室內 近親婚을 中心으로」, 『신라문화』 12,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95.

홍승우, 「신라 副君과 月池宮」, 『동양학』 70,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8.

황선영, 「新羅下代 景文王家의 王位繼承과 政治的 推移」, 『신라문화』 27,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6.

Tikhonov, 「景文王의 儒·佛·仙 融和政策」, 『아시아문화』 12,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6.

〈Abstract〉

## Three Virtuous Persons in Silla History

Liang, Nan · Chang, Hwal-Sik

In 860, King HeonAhn(憲安王) asked EeongRyum(膺廉), a royal young man arranged to marry his daughter, as to the virtuous persons. The young man said he had met three. The first was the one with excellent qualifications but happy to stand below others. The second was the one immensely rich but happy to wear cheap clothes. The third was the one with tremendous power and authority but happy to care others. In the previous research, the three virtuous persons are considered to represent the ethical principles a king must hold, the moral guidelines established for the Hwarang(花郞) group, or the cynical criticisms o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officers who never honored such values.

This paper examined Silla history to identify the virtuous persons. The first one seems to be ChoongGong(忠恭) who awaited his turn for the kingship but died in 835 as a prime minister. The second one seems to be King HeungDeok(興德王) who promulgated laws prohibiting luxurious goods and extravagant events. The third one must to be King MunSeong(文聖王) who cared much for his people. ChoongGong unified various branches of the royal family to cope with rebelling forces; King HeungDeok opened up the monopolized kingship to other branches of the family; King MunSeong reconciled subbranches of the royal family. EeongRyum seems to have stated implicitly that he will pursue unity and collaboration through concession and negotiation, harmony and prosperity through caring and sharing, equilibrium and stability through reconciliations and tolerance in his kingship.

\* Key Words: Virtue, Lessons, Metaphor, Allegory, Hidden Messages

· 논문투고일: 2020년 5월 16일 · 심사완료일: 2020년 8월 5일 · 게재결정일: 2020년 8월 25일